

명랑한 혁명에 대하여

글은 언어로 표현되고 그림은
색과 형태로 표현되지만, 둘은 하나다.
달항아리 작가, 강익중의 첫 시집이 나왔다.
전라남도 순천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전시
오프닝에서 강익중 작가를 만났다.

강익중과의 만남은 한 장의 엽서에서 시작했다.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세계적인 작가 강익중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꿈의 직업’을 그려보고 다른 사람들의 꿈도 들여다보세요.” 기획과 진행을 맡은 이앤아트 이규현 대표에게 전화해 인터뷰를 청하자 ‘순천’ 이야기를 꺼냈다. 판교 전시 오프닝에 앞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을 공개하니, 그곳에서 만나는 게 더 좋을 거라며 일사천리로 인터뷰를 주선해주었다. 순천 시내의 한 식당 이름은 ‘섬진강 채첩비빔밥’이었다. 식당에서 비빔밥을 맛있게 한 그릇 비운 그는 환한 얼굴로 다가와 두 손으로 책 한 권을 건넸다. “여기에 이 식당에 관한 시도 있어요.” 송송책방에서 나온 <달항아리 강익중>은 강익중의 첫 시집이다. 부라부라 찾아보니, 101페이지에 ‘섬진강 채첩비빔밥’을 제목으로 한 글이 있다. 빙그레 미소가 나고, 마음이 환해진다. 그와 만나기 전, 이 책을 들춰보지 않았다면 다소 의아했을 것이다. 대화 내내 메모장에 적고 싶은 어록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오랜 시간 어휘를 채집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가다듬었을 생각들이 102편의 시 속에 녹아 있다. “올봄에 충북 괴산에서 교편을 잡다 은퇴한 국어 선생님이 제가 올렸던 글을 모아 시집으로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일일이 복사하고 제본하셨을 그 정성에 너무 감사했고, 시집이 나온 계기가 되었어요. 20년간 모으니까 많은 글이 모였고, 500여 편 중에서 100여 편을 골랐어요.” 달항아리와 한글, 어린이 꿈 그림을 모자이크 설치작으로 글로벌한 작업을 펼쳐온 강익중의 첫 시집은 20년간 그가 모아온 마음의 풍경이다. 정식 시인이 아니기에 시집이라는 말 자체도 쑥스럽다는 그이지만,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마음을 뒤흔든 책이었음을 고백한다. 꿈꿈이 생각해보니 작가로서의 그가 삶을 통해 보여온 어떤 태도에서 받은 감동과 일맥상통한다.

강익중이 삶속에서 체득한 지혜를 축적한 산문시, ‘내가 아는 것’ 시리즈도 이번 시집 한권을 차지하고 있다. 동명 타이틀로 2017년 아르코 미술관에서 전시도 있었는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했고, 벽화 설치작으로 구성한 바 있다. 당시 박원순 서울 시장이며 배우 고수, 야구선수 박찬호

등도 참여해 화제가 됐다. 강익중의 ‘내가 아는 것’ 1호는 “폭풍 직전의 하늘은 연한 청록색이다”인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다른 인터뷰에서 사연을 찾았는데 내용은 이렇다. 결혼식 후 장모님이 ‘자네는 도대체 아는 게 뭔가’ 물었고 아는 것을 꿈꿈이 생각하니 처음 떠오른 게 어릴 적 이태원 가난한 비탈동네에서 살았던 기억이었다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 색깔을 떠올리며 하나의 문장을 적었다. “책을 읽는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나의 창을 만드는 일이에요. 비록 미천할지언정 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는다 해도 내가 아는 것에 대해 물으면, 한 문장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의 창으로 보는 세상에 익숙해진 탓이죠. 일생에서 한번은 나의 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가능해요. ‘나 알아’ 대신 ‘나 몰라’를 인정하고 자신이 아는 것 한 문장을 우선 쓰세요. 지금 이 유자차는 달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강익중의 ‘첫 번째-내가 아는 것’ 산문시에서 몇 문장만 발췌하면 이렇다. “어릴 적 들은 칭찬은 오래 기억된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 앞에서 뛰면 안 된다/무대 공포증은 나보다 더 큰 나를 보여주려 할 때 생긴다/하늘 아래 모든 것은 심리학이다/기회는 다시 온다/정말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다.”

순천만국가정원으로 가기 전, 그는 오늘도 쓴 글이 있다며 메모장을 꺼고 찬찬히 읽는다. “아까 기차가 남원역 즈음을 지날 때 현충공원에 대해 쓴 시가 있었는데, 읽어볼게요. 가족을 지키려다 나라를 지키려다 목숨을 던진 분들이 계신 곳이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곳이다. 우리마저 죽으면 아무도 기억 못할 분들 여기에 모셔 큰 원을 그렸다. 이 원은 용서의 원이고 화해의 원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주고, 남과 북을 이어주고, 너와 나를 이어주고,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이름의 원이다. 우리는 통일만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이 끊어진 어망 잇기라면 우리는 잇기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 어망으로 대어를 낚는 꿈을 꾸다. 미래를 낚는 꿈을 꾸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볼 것이다. 우리는





강익중과 순천시민 6만5000명이 협업하여 만든 <현충정원>이 2018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공개됐다. 작가는 이날, 임진강 위에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랫말로 외벽을 장식한 원형 모양의 미술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꿈의 다리>가 현실화하면, 그림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고, 꿈의 다리를 걸으며 북녘땅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통일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지난 6월 8일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강익중 작가를 만났다. 가로 3인치, 세로 3인치 작은 네모 종이에 일반인 참가자가 그린 ‘꿈꾸는 직업’ 그림 1600점을 길이 9미터의 설치 작품으로 제작, 1층 로비에서 8월 3일까지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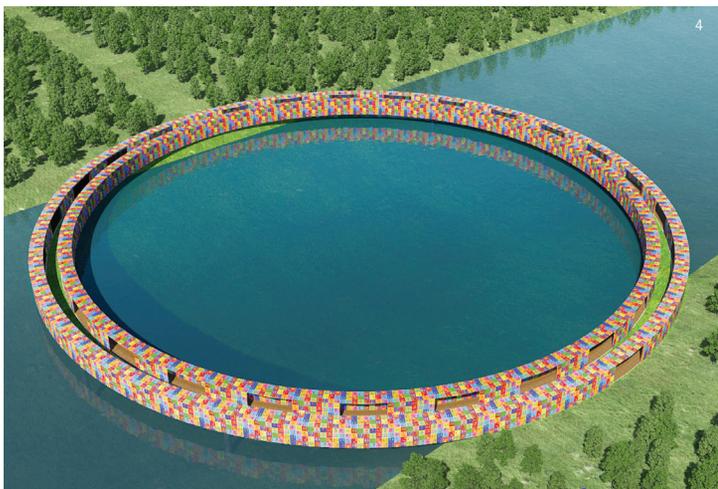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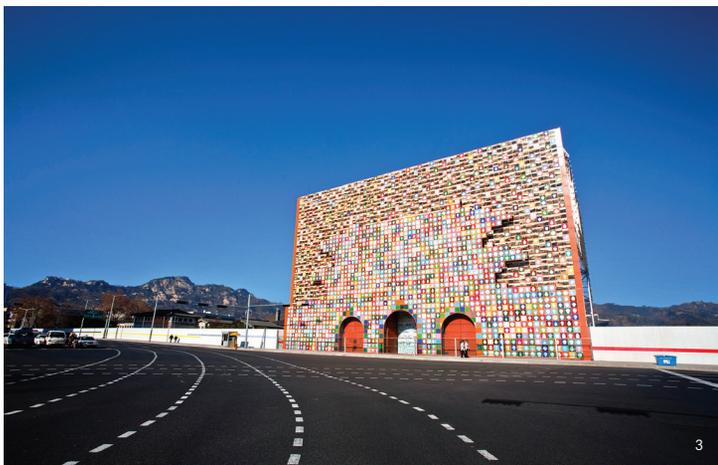
세계로, 세계는 우리의 심장이다.” 순천 시민 6만5천 명의 3인치 그림과 강익중이 협업한 <현충정원>이 지난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공개됐다. 현충 기념탑 대신 지름 36.5미터, 높이 3.5미터의 둥그런 원 모양의 조형물이 순천만국가정원에 들어앉았다. 작품은 외부, 내부, 중앙으로 나뉜다. 작품 중앙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놓이고 둘레에는 순천 출신의 순국선열 3816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외부에는 ‘아리랑’의 가사를 이용해 강익중 작가가 직접 제작한 패널을 붙였고, 내부에는 각각 3인치의 정사각형에 그린 그림과 작가의 달항아리 작품이 있다. 순천시내 도서관, 학교, 아파트 곳곳에서 자원봉사자 1천 명이 시민들이 그린 그림을 모았다. 그림을 들여다보니, 뭉클한 마음이 든다. 별나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6세의 이도연 군은 군인 아버지께를 그렸고, 순천 조례 초등학교 11세의 정소현 양은 미래에 되고 싶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그렸다. 순천시 오천7길 12번지에 사는 한 시민은 ‘국화꽃 한 송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를 썼다. 숫자와 기호, 어린이와 노인의 서툰 그림들이지만 한국에 모이니 연결되고, 연결되니 그곳에 우주가 있다. 작가는 공공미술은 ‘명랑한 혁명’과 같다고 말한다. 기획단계부터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그 소통은 명랑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어떤 분이 ‘잊지 말고, 잊자고 썼어요. 전시에 참여한 분들은 느껴요. 난 혼자자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는 것이요.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서 <꿈의 다리>를 설치했는데, 그해에 입장객이 600만 명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그중 기억나는 분은 설치 이후 울산에서 거의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어요. 정원의 매표소 직원분이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물었더니 손자 그림이 거기 있다고. 손자 그림이 있는 게

할아버지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그 사연을 듣고 당시 순천 시장님이 그분에게 평생 입장권을 전하셨죠.”

강익중 작가가 뉴욕으로 떠났던 1984년. 신분상 적을 두어야 해서 프랫(Pratt)에 등록했고, 가져온 3000달러 중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고 나니 수중엔 딱 20 달러가 남아 바로 일을 시작했다. 밤에 델리에서 일하며 채소를 다듬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옷가게 점원과 차이나타운의 시계 노점상으로도 일했다. 지하철을 타고 일터와 학교를 오갈 때가 유일한 자유 시간이었고 지하철 안에서 그리기 시작한 게 ‘3인치’ 그림이다. 어린이 꿈을 담은 그림을 모자이크 설치작으로 표현한 것은 199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참가한 이후부터다. <모든 것을 더하고 던지기>로 특별상을 수상한 이후 그는 조금씩 작가로서의 길을 확장해갔다. 당시 84세의 김환기 작가의 미망인 김향안 여사와의 만남도 그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작가로서의 제 삶에 은인이셨던 백남준 선생님, 그리고 김향안 선생님. 파리 여행에 이틀간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 세 가지 조언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침을 잘 먹어라, 몸이 약해지면 셋길로 가다 넘어지니까. 두 번째는 식당에 가면 팁을 후하게 줘라. 그들 뒤에는 가족과 이웃이 있다는 것, 항상 남에게 관대하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유혹과 기회를 분별해라. 어떻게 둘을 구별합니까 하니, 이렇게 말하셨죠. 지금 말해도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 것이니 말하자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너에게 좋은지 자식에게 좋은지 생각하기 전에 역사와 민족과 세계에 옳은 일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확신이 든다면 밀고 나가라고요.”

역사와 민족, 세계라니 거창한가. 강익중 작가는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고





작품 사진 제공 강익중 스튜디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 그 마음을 모아 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왔다. 그해에 파주 통일동산에서 141개국 어린이들에게 '나의 꿈'을 주제로 받은 그림을 모아 <10만개의 꿈> 전시를 개최했고, 9.11 테러 이후인 2001년도에는 유엔 로비에 3만4000명의 어린이 작품 <놀라운 세계>가 전시됐다. 2004년, 일산 호수공원에는 12만 6000여 장의 그림을 붙인 대형 풍선 <꿈의 달>을 띄웠다. 강익중 작가는 무엇보다 오래전부터 염원해온 일이 있다고 했다. 이 모든 일은 그 과정 중에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바라는 일이다. "임진강 위에 남과 북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 100만 장으로 내부를 꾸미고,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랫말로 외벽을 장식한 원형 모양의 미술관을 만드는 거예요. 실행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는데 번번이 무산됐죠. 2016년 9월에 런던 템스강에서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 어르신들과 함께한 전시가 있었어요. 난생처음 그림을 그린다는 할아버지 한 분은 고향 그림을 그리다 어린아이처럼 우셨어요. 그분들 소원은 꿈에서라도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것입니다. 공공미술은 희망이라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희망은 기다림이고, 희망의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하죠."

화가들은 주로 사람의 앞모습을 그립니다/뒷모습만 그리는 화가도 있습니다/하지만 피카소는 앞과 뒤를 함께 그렸습니다/앞과 뒤가 합쳐져야 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시간에서의 앞과 뒤도 우리가 정해 놓은 숫자/과거와 미래도 결국 한 원에서 만납니다/오늘 나는 남과 북이 합쳐져 한 원에서 만나는/둥글고 넉넉한 달항아리를 그립니다. - 강익중의 시집 중 <달항아리>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작가가 하는 일은 시 쓰기, 마당에 물 주기, 그리고 집안 청소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제가 청소기를 샀어요. 꽃이나 반지 같은 걸 사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왜 샀냐고 물어서 '청소를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라고 둘러댔어요. 그걸로 쓴 시도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청소를 하루라도 안 하면 게름칙하다, 마음 청소로 하루를 연다, 그때 청소기 참 잘 샀다, 이런 내용이예요."(웃음) 유명 화가지만 소박한 마음을 잃지 않고, 높은 산 정상에 올랐지만, 여전히 치열한 그이기에 궁금했다. 당신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 그들에게 받은 유산,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시면 오르고 내릴 때 풍경 보시는 걸 좋아해 늘 창가에 앉으시는데 비행기 타기 며칠 전부터 국물 있는 음식을 안 잡주세요.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 다녀오면 잠자는 옆 사람에게 방해된다고. 서울에서 이곳까지 비행시간이 14시간 20분인데, 한번에 쪽 타고 오세요. 남을 많이 배려하시고, 신세 지는 것을 무엇보다 못 견디는 분이신데 그 부분을 좀 닦은 거 같고요. 지금 대학생이 된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보다, 키우면서 다 짐한 것은 하나 있었어요. 칭찬으로 샤워를 시키자는 것이었죠. 제가 그림을 그린 건 아주 사소한 게 계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쯤에 큰아버지가 명함만 한 크기의 사진 한 장을 주면서 증조할머니 영정을 그리라고 했어요. 연필에 침 발라서 열심히 그렸는데, 그림을 보시곤 '우리 집안에 화가가 났다'고 칭찬하셨죠.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고. 중학생 때 집에 지하실이 있었는데, 잠이 아까울 정도로 그림을 그렸고 그때 참 행복했던 거 같아요. 또 한번은 고등학교 때 미술반이었는데 미술선생님 친구가 학교에 왔을 때 한 말을 들었어요. "재가 강익중이야".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그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HERITAGE MUINE

1,2 강익중은 2016년 런던 템스강 페스티벌에 메인 작가로 초청돼 실향민들의 그림을 모아 만든 설치작품 <집으로 가는 길>을 템스강 위에 한 달 동안 띄웠다. 3 광화문 가림막 설치작품 <광화문에 뜬 달>(2007). 4 20년 가까이 강익중 작가가 꿈꿔오고 시도해온 임진강 위의 <꿈의 다리> 스케치.